

삼성전자, 2007년형 보르도 LCD TV 출시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TV 시장을 평정한 '보르도 LCD TV'에 이어 올 한해를 주도할 신제품 '2007년형 보르도 TV'를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2월 6일 32·40인치 2007년형 보르도 TV(모델명 LN32/40R81BD)를 선보이고, 올해 세계 TV 시장 석권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삼성전자의 2007년형 보르도 LCD TV는 와인잔 형상의 감성 디자인을 극대화 해 '아름다움'을 한층 강조한 제품이다. 부드럽고 투명한 곡선의 제품 하단에 베젤 디자인을 채용해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와인잔을 본뒀고, 물속에 퍼지는 느낌의 푸른색 LED 전원 조명으로 TV의 품격을 높였다. TV 전면과 테두리, 후면에는 흑진주 코팅을 연상시키는 고풍택 하이그로시 코팅을 처리했으며, 소프트 터치 방식의 컨트롤 버튼을 통해 TV의 아름다움을 높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보르도 TV 신제품은 삼성전자의 '슈퍼-PVA' 패널을 적용해 고화질을 구현한 것은 물론 178도 광시야각으로 어느 방향에서도 보다 선명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다.

특히 명암비는 종전 5,000 대 1 수준보다 배 정도 향상된 1만 대 1을 구현했다. 또한 청색·녹색의 표현 영역을 넓혀 더욱 사실적인 색상을 구현하는 '와이드 컬러

컨트롤' 기능으로 햇빛 등 밝은 환경에서도 하늘색·잔디색 등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밖에 3개의 고화질 HDMI 단자를 적용해 캠코더·게임기 등 각종 디지털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고, USB 2.0과도 호환이 가능해 PC에 저장된 사진도 볼 수 있다.

LG전자,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프리미엄 폴더' 출시



LG전자가 비즈니스 리더들을 겨냥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사용 편의성을 높인 '프리미엄 폴더'를 출시하였다.

'프리미엄 폴더'는 조작이 쉽고 간편한 기능으로 비즈니스맨들과 중·장년층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회의 중 말하지 않고 문자로만 통화 가능한 「모티켓(모바일+에티켓)기능」 ▲중요한 회의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음성메모」 ▲TTS(Text to Speech) 기술로 전화를 건 사람과 문자메시지 내용, 오늘의 일정을 목소리로 알려주는 「음성 비서」 등 특화기능이 탑재돼 있다.

또한, 중·장년층을 위한 돋보기 기능이 있어 일정과 메모를 큰 글씨로 볼 수 있으며, 메뉴 글자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이 밖에 130만 화소 카메라, MP3플레이어, 단어를 읽어주는 전자사전, 지하철노선도, 스톱워치, 단위변환기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내장했다. 가격은 30만원 대 후반

'프리미엄 폴더'는 메탈재질의 외관에 반사 코팅된 외부 LCD창을 채택해 절제된 세련미를 강조했다.

LG전자는 SKT의 감성브랜드 '스타일' 휴대폰으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폴더'가 디자인과 함께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MC사업본부 한국사업부 황경주 상무는 "프리미엄 폴더는 세련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사용의 편의성을 획기적 높인 인터페이스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텍전자, 19인치 LCD 모니터 출시

유니텍전자는 뷰소닉의 19인치 LCD 모니터 'VX1935wm 유니텍'을 2월 4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최대 1,440×900의 해상도와 5ms의 빠른 응답속도 및 700:1의 명암비, 300cd/m² 밝기를 제공한다.

디지털 신호 입력으로 고품질의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 DVI단자와 D-SUB단자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도난방지를 위한 캔싱턴 록 출을 지원해 공공장소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출력포트에는 TV-OUT 단자, 최상의 화질을 보여주는 DVI단자, CRT모니터와 연결이 가능한 D-SUB단자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모니터암이나 월브라켓 등을 연결하여 벽걸이 기능 등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삼성전기 초소형 MLCC 세계 첫 개발



삼성전기가 세계 최고 성능의 MLCC(적층 세라믹콘덴서)를 개발, 해외 경쟁사보다 6개월 이상 기술 우위를 확보했다.

삼성전기는 세계 최초로 1005 규격(가로 1.0mm 세로 0.5mm 두께 0.5mm)의 정격전압 6.3V(볼트)급 4.7μF(마이크로 패럿) MLCC를 개발했다고 2월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삼성전기가 지난해 11월 개발한 1005 규격 제품과 비교해서 용량은 4.7μF으로 동일하나 정격전압은 50% 이상(4V→6.3V) 향상돼 더욱 강한 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전자제품에는 1005 규격의 정격전압 6.3V급 2.2μF MLCC가 주로 사용되는 데 이번 제품은 용량을 2배 이상 늘려 삼성전기는 이번 제품 개발로 소형 초고용량 부문에서 해외 경쟁사보다 6개월 이상 기술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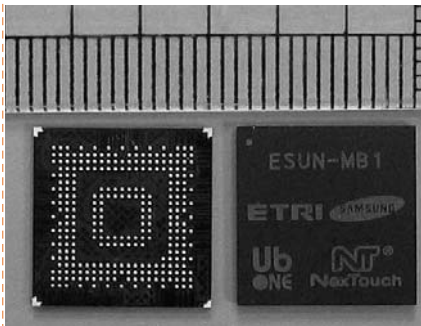
삼성전기 LCR개발팀장 허강현 상무는 “1005 규격의 초고용량 제품을 연이어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확고한 기술우위를 유지하게 됐다”며 “이번 신제품을 조기 양산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2분기부터 주요 휴대폰 업체들을 대상으로 샘플 공급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기는 올해 1005 규격의 10 μF MLCC와 2012 규격의 100μF MLCC

등 세계 최초 초고용량 제품들을 지속 개발해, 경쟁사와의 기술격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MLCC(적층세라믹콘덴서)는 휴대폰에 250여개, LCD TV에 700여개 등 전자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범용 핵심 부품으로 세트가 소형화 됨에 따라 작고 용량이 큰 MLCC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ETRI, 삼성전기 등과 공동 270메가 속도 무선랜 상용칩 개발



20Mbps급 영화 한 편을 60초 이내에 내려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랜 모뎀 상용 칩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삼성전기·유비원·넥스터치와 공동으로 다중 안테나 기술을 이용한 270Mbps급 초고속 무선랜 듀얼밴드 모뎀 칩(802.11a/g/n)을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ETRI 연구진은 이 칩의 상용화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다.

이 모뎀 칩은 기존의 무선랜 칩 전송속도(11M~54Mbps)보다 5~20배 이상 빠른 270Mbps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반경 100m에서 최장 1km까지 무선전송이 지원된다. 듀얼밴드로 제작돼 20MHz와 40MHz 대역폭을 모두 수용한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영화 1편을 60

초 안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MP3 음악 파일은 몇 초만에 전송이 가능하다. 특히 각 가정에서는 HDTV 콘텐츠를 집 안 곳곳에서 동시에 무선으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ETRI 연구진은 인터넷 전화(VoIP)나 핸드폰과 무선랜을 결합한 듀얼모드 휴대폰 개발, VoIP를 대체하는 MoIP(Multimedia over IP) 단말기 등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소니코리아, 비즈니스 전용 모바일 노트북 출시



소니 코리아가 1,300개 기업 조사를 통해 설계된 소니 최초의 비즈니스 전용 모바일 노트북 '바이오 G 시리즈'를 2월 3일부터 직영점 및 온라인을 통해 예약판매한다.

소니 코리아(대표 윤여울, www.sony.co.kr)는 견고하고 배터리 사용시간이 오래가는 비즈니스 전용 모바일 노트북 '바이오 G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바이오 G 시리즈는 업무용 노트북에 요구되는 강하고, 오래가고, 얇고 가벼운 속성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만족시켰다는 게 소니 측의 설명이다.

신제품은 기존의 마그네슘보다 30% 더 가볍고, 200% 더 단단한 탄소섬유가 제품의 상판, 하판, 팜레스트에 적용됐다.